

社 說

포천시 公務員정신차려야

최근 포천시 공무원 사회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공무원 스스로 본연의 역할과 업무외의 다른 업무에 치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돼 공직사회가 심각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천시장이 지난 24일 경기도예절교육에서 개최된 공무원 교육장에서 구 모씨에 대한 선처를 검찰에 요구했다. 고 발언에 비리 혐의를 두둔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를 돕기 위해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사업계획을 유리하게 보고해준 뒤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박 모씨와 박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포천시청 전직 공무원 정 모씨에게 구속했다.

박씨는 상하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2001년 11월 포천시가 신청한 슬러지처리와 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보조사업 계획을 포천시가 유리하도록 원안대로 환경부 등에 보고해준 뒤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포천시 공무원 3명이 이 사건과 관련돼 지난 18일 연행돼 조사를 받다가 1명은 귀가 했으나 나머지 2명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 중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그 댓가로 받은 뇌물 수수사건이 포천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P 면장과 일선 면사무소 C도 직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C모씨 남편이 포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경기도청 감사과에 의해 밝혀졌다.

경기도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포천시는 이 두 사람을 지난 19일 직위해제 통보하고 경기도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P씨는 직위 해제된 지난 19일 직권친목회인 '삼목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촌면 모 거점에서 회식 자리를 갖고 회인 13명으로부터 전별금 13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이권에 눈이 멀어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가 하면 남의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모자라 직위 해제된 후 전별금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이번 두 사건을 계기로 포천시 공직사회는 깊이 자성하고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속수감중인 직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검찰에 선처를 부탁하는 것도 좋지 않은 재판이전이라도 인사조치해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직위해제된 자리에 대해서도 신속한 인사를 통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검찰조사와 재판, 경기도 인사위원회 징계여부를 떠나 포천시장은 조속히 빈 자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포천시청 공직자들이 이러한 사건에 주체가 되거나 연루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여 밝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포천시의회 李天默 산업도시위원장에게 듣는다

“의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로 포천시 발전위해 노력”

송우택지개발지구 교통체증 해소 등 교통난 해결 시급

“마음을 비우고 지역의 발전은 물론, 포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의원(49.사진)이 기초의회 의원의 태도를 이같이 밝혔다.

이천묵 의원은 포천시 선단동 출신 초선 의원이며 포천을 개발자분위인 선단동 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포천시의회 후반기 산업도시위원장으로 취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구에 대전대학교와 포천중문의과대학이 자리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3만여명의 동인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 민·관·산·학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선단동 건설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원상호간의 화합과 단결된 의지로 도농복합도시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천묵 포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을 찾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 제1대 포천시의회 후반기 산업도시위원장으로서 취임한 소감은?

포천의 발전을 꾀하며 느끼고 지역의 생산활동은 물론 시민의 생활민원과도 가장 밀접한 분야가 산업도시 분야라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특히 시정 1년이 지난 시점에 맞춰 마련된 포천의 발전상이 담겨진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와 격려를 하는 한편 향후 실행계획에 토지이용에서부터 교통물류, 기반시설확충, 산업인프라 시설 등에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 산업도시위원장에서 포천 산업발전

의 가장 저해 요소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포천의 입지여건은 면적이 826.64km로 서울의 1.4배이고, 서울과 46km로 1시간 이내의 근거리에 있고 인천공항과는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보호구역 등과 같은 중첩규제와 함께 나날이 더해 가는 교통체증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첩규제가 기업의 입지적 여건을 제약한다면 교통체증은 물류비용 증가 원인으로 기업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음은 물론 우리시의 인구 유입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43번 국도의 대체도로 개설이라고 본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광역고속도로, 43번국도 우회도로, 전철 7호선 연장, 신도시 건설 등 대형 국가기간사업은 토대로 한 계획도 좋지만 당장 송우택지개발지구의 입주시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어 도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할지 걱정된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현재 직면한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앞으로의 발전 토대를 만들고 시민의 불편도 해소 될 것으로 본다. 먼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이동교~의정부시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조기에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통체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도43호선 대체도로를 국가사업으로 조기 추진되도록 포천 시민의 역량을 모아 중앙에 건의 하는 등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계획의 검토 의견은?

2003년 35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도시기본구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도시개발, 민자고속도로 건설, 43번 국도우회도로, 도시철도 연장, 산업단지 조성, 대전테크노파크 조성 등 국가 사업 등이 잘 반영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가 미약하고 실천전략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까지 지속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시정적 이후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계획인 만큼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보완해 나가려면 포천의 발전은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하수도 확대 보급방안은?

2003년도 기준 포천시 상수도 보급률은 53%, 하수도 보급률은 36.2%이며 상수도 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우·오수관 분류관거 정비미비로 인한 수질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등을 통해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대규모 투자로 보급률을 39%까지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수입증가에 따른 농업대책은?

WTO/DDA(도하개발아젠다) 농산물 협상은 UR협상에서 도출된 원칙에 따라 시장개방과 농업보호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정부도 농산물 수매를 점차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유통구조를 개발해 나가는 것도 지자체로서 하나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천 묵 포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장

이러한 개방 압력에 맞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집적화로 생산단가를 낮추고 전문 농업인력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친환경적 도시근교농업체제 구축과 품종개량 및 품질향상을 통해 인접한 대도시 시장을 겨냥한 고품질의 농산품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소득증대를 위해 영농과정을 체험하는 관광농업 육성에 주력하고, 지역농산물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와 직거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농·축산물 유통 정보와 구축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 되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정보화 마을 구축사업은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의 직접 상거래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되도록 전면 재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은 또 “산업,도시 문제는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소속 의원들과의 화합을 바탕으로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제35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12월17일 포천신문 송년의 밤 행사 준비의 건 등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제35차 정기회의

12월17일 송년의 밤 행사 준비의 건 등 처리

포천신문 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호)는 지난 19일 제3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12월17일 2004년 송년의 밤 행사 준비의 건 등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2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정기회의는 이상갑 교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004년 송년의 밤 행사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년 송년의 밤 행사에 모든 위원이 참석하여 포천신문 각 위원회와 첫 번째 성공적인 만남으로 계획할 것을 의결했다. 또 경조사비 내역중 포함되지 않았던 운영위원 자녀 결혼식에도 다른 경조사와 같은 내용으로 할 것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포천신문이 갈수록 포천사회를 밝고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최호열 발행인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포천신문이 정론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포천신문이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정론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는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천신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미군기지 반환지역 개발지원 강화 추진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국회 제출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정성호(鄭成湖) 의원 등 여야 의원 49명은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국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희상 의원



정성호 의원

법안은 기지반환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함께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지 반환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 첨단과학기류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낙후됐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문희상 의원은 “주한 미군의 주둔과 철수로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고 정성호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공황이 예상되는 동두천과 의정부 등 지역이 산업단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정치활동 동향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70개 시민사회단체(국정 NGO모니터단)가 선정, 발표한 75명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수국감의원, 우수상임위원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박은욱 포천시장은 21일, 포천시 청심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린 “2004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을 격려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맑고 푸른 포천을 건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대중 포천시의회회장은 지난 20일 포천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포천교육장배 경 제8회 협회장기 초·중·고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석해 대회 관계자 및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희 포천시의회부의장은 지난 24일 영북면 산정리 우물목 진입로에서 개최된 영북면 산정리 농어촌도로화·포장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오병익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위원들과 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항만지원사업단을 시정 방문해 충남·경기의 경제분쟁을 최소화하기 한 대책을 강구하고 논의했다.



이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논의하고 도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천묵 포천시의회회원은 지난 23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포천구절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포천구절초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훈 포천시의회회원은 28일 이동면 도평3리에서 개최된 제2회 약사골 한방김치축제에 참석해 한방김치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강밀 포천시의회회원은 24일 포천농협공판장에서 개최된 포천농협추곡수매에 참석하고, 26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실시된 교원미술에서사 진전시회를 참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자/유/기/고

디오게네스의 당당함



이 중 희

포천시선거관리위원
시인, 본지 자문위원

“거지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는 그 현명한 만큼이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어느 날 그가 대낮에 초롱불을 켜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여기 저기를 두리번거리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당신은 이렇게 밝은 대낮에 초롱불을 켜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고, 이 세상에는 밝은 대낮에도 정직한 사람이 안 보이니 초롱불을 더 밝혀 가지고 그

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요.” 그는 부정직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상한 행동으로서 일침을 주면서 각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 주었다. 그는 또 드럼통 같은 술통 하나를 유일한 자기 집으로 삼고 이리저리 끌러 마을대로 이사 다니면서 그 속에서 잠자고 먹고 살았다. 그러면서 때때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왜 큰집만 좋아합니까? 곤충이나 동물의 집들을 보세요.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집에서도 겨울을 지내고 있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큰 집을 짓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비웃곤 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방에 갔을 때 주요 인사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모두 나왔다. 디오게네스만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만나 보려고 그를 찾았을 때, 그 때 술통 앞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즐기고 있는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물

었다. “나는 그대의 현명한 지혜를 많이 듣고 배우고 있고, 그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일이 있겠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했다. “내가 대왕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어서 말하라고 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따뜻한 햇볕을 즐기는 중이요, 그런데 대왕은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조금 옆으로 비켜 주시지 않겠소?” 이 얼마나 도도하고 정직한 사람이란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인가? 대왕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돌아가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이고 싶었다.” 조금만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 서기만 하면 교만하고 방자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 온 우리들에게 디오게네스 같은 진정한 당당함을 보여 줄 만한 정치인은 과연 없는 것인지 서글프다.



이철우 국회의원 우수국감상 수상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70개 시민사회단체(국정감사모니터단)가 뽑은 우수국감의원, 우수상임위원 시상식에서 이철우 국회의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Public information box for Pocheon News (포천신문)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a disclaimer.